



올 6월에 개장한 베트남 나트랑 캄라인의 '더 웨스틴 리조트 앤 스파 캄란'. 베트남에 처음 들어선 웨스틴 리조트로 자연 친화적 설계와 함께 알찬 휴양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두루 갖추고 있다. [사진 더 웨스틴 리조트 앤 스파 캄란]

'동양의 나폴리' 나트랑...원 없이 잘 쉬고 잘 먹고

"뜨트랑(또+나트랑)입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잘 쉬어야 한다. 한 번 오면 또 찾게 되는 나트랑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온전한 휴식'을 만끽하고 싶다면 나트랑만한 곳도 없을 것이다. 9월의 나트랑은 30도를 웃돌아 무더웠지만 꾸준히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6km 넘게 길게 펼쳐진 나트랑 해변을 따라 야자수 나무가 정원을 이룬 풍경을 바라보니 과연 '동양의 나폴리'로 불릴 만하다 싶었다. 나트랑은 카인호아성의 성도로 1800년대 말 프랑스 지배 당시 휴양지로 개발됐는데 현지인들은 '나트랑'이라 더 많이 부른다. 올해는 건립 100주년을 맞아 의미가 더 깊다.

6km 나트랑 해변 등 유혹, 뜨트랑 별명 특히 접근성이 좋아 가족 휴양지로 인기가 높다. 전성원(29)씨는 "저희와 이모네 가족이 함께 이동해야 해서 접근성을 먼저 봤는데 직항으로 5시간이면 오고 리조트도 가까워 편했다"며 "베트남이 한국과 비슷한 면이 많아 친숙한 점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트랑 캄란 공항까지 직항 노선도 갈수록 늘고 있다. 대구-청주-무안 등 지방 공항에서도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노선을 늘리면서 올 8월까지 왕복 운항편수가 8767편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나 늘었다. 승객도 165만 명을 넘어섰다. 잘 쉬려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한 게 첫째다. 이를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올 6월 개장한 '더 웨스틴 리조트 앤 스파 캄란'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대표적인 리조트

로 꼽힌다. 캄란 공항에서 10분도 채 안 걸리는 데다 베트남에서 처음 오픈한 웨스틴 브랜드인 만큼 최신식 시설을 자랑한다. 1320그루의 코코넛 나무로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 조경부터 공들인 티가 난다. 특히 리조트 내 지형을 깎지 않고 그대로 살려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전체 조경 감상이 가능하다. 자연과 어우러진 야외 풀장도 인기몰이에 한몫하고 있다. 김서연(33)씨는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 왔는데, 깨끗하고 풀장도 수영하기에 딱 좋았다. 쉽게 쉬는 더하고 가는 느낌"이라며 만족했다. 이제 흔 총지배인은 "최근 투숙객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일 정도로 많이 찾고 있다"며 "웨스틴의 컨셉은 한마디로 '쉬러 온 분들께 잘 쉬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웰니스(Wellness)를 시그니처로 내세우는 브랜드답게 '잘 쉬는 법'도 제대로 알려준다. 207개 객실엔 온도 조절 기능을 통해 수면을 도와주는 해브리 베드(Sleep Well)가 갖춰져 있고 베트남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맛보는 쿡킹 클래스(Eat Well)도 주 2회 진행된다. 이른 아침 열리는 요가 수업(Move Well)과 스파(Feel Well), 리조트 앞 바이다이 해변에서 즐기는 레저 스포츠(Play Well)까지 'Well'이란 시그니처 콘셉트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자녀들과 함께 온 권혜진(42)씨는 "베트남은 세 번째로 나트랑은 처음인데, 풀빌라가 워낙 잘 되어 있어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빨리 마치고 열른 방에 가서 놀자고 조를 정도"라며 웃었다. 가족 단위 휴식객들이 즐겨 찾는 풀빌라는 총 19개인데 빈방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별도의 풀이 갖춰져

야자수로 둘러싸인 웨스틴 리조트 풀빌라도 인기 '절반 이상 한국인' 냄느영·생선살국수·반칸 맛보고 룡선사 정상 오르면 24m 좌불상



있어 아무 때나 수영할 수 있고 독채 스타일이라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휴일 없이 운영하는 키즈존도 인기가 높다. 키템 만들기, 종이 공예, 슬라임 등 요일별로 짜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부모가 따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쟁기는 세심함이 엿보인다.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한 뒤엔 대부분 관광하러 시내로 나선다.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밀집해 있는 나트랑 시내에선 나트랑의 대표 음식을 어렵지 않게 접

할 수 있다. 숯불고기와 각종 채소를 라이스페이퍼에 싸 먹는 냄느영은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골목에 1-2곳은 꼭 있는 분짜(생선살국수) 음식점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 특산물인 생선과 해파리 등을 곁들여 먹는 쌀국수다. 계란에 해산물과 피쉬소스를 넣고 툄에 굽는 반칸, 베트남 부침개인 반쎌오, 한국의 김치 격인 모닝글로리(공심채), 연유 커피인 카페 쓰어다 등 베트남 전통음식



도 함께 맛볼 수 있다. 불교·가톨릭·힌두교 유적이 웅기종기 서울의 40%정도로 넓지 않은 면적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도 나트랑의 또 다른 특색이다. 룡선사, 나트랑 대성당, 포나가르 사원 등 불교·가톨릭·힌두교를 대표하는 세 곳이 차로 10-15분 거리에 모여 있다. "어머, 여기 경치도 볼 만하네." 대구에서 왔다는 김가희(38)씨는 193계 계단을 올라 룡

선사 정상에 선 뒤 나트랑 시내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정상엔 베트남에서 가장 큰 24m짜리 좌불상이 있는데 시내 저 멀리서도 보일 정도다. 정상에 올라가는 중간쯤에 누워 있는 불상의 발가락과 팔꿈치를 문지르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믿어오는데 재미도 있었다. 룡선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달리면 힌두사원인 포나가르 사원이 보인다. 흥겨운 민속음악에 맞춰 추는 참파 민속춤 공연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참파 민속의 어머니로 불리는 포나가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네 개의 참파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땀을 식힐 타이밍이라면 담시장을 다음 행선지로 정해도 좋다. 신관과 구관으로 나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엔 식품품, 2층엔 의류와 잡화 상품 매장이 가득하다. "한 개에 육만동"이라며 한국말로 권유하는 현지 상인에게 "오만동?"이라며 역시 한국말로 흥정하는 모습도 쉽게 접할 수 있다. 'LEE KANG IN'이라고 새겨진 축구 유니폼에 블랙핑크 제니의 '최애 동물'로 널리 알려진 커피바라 인형까지 한류 열풍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에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다. 시장을 찾은 강현정(55)씨는 "한국처럼 친근하면서 휴양지로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춰 계획 없이 왔는데도 더없이 만족스럽다"며 "뜨트랑한다는 게 이래서 나온 말이구나 싶다"고 말했다. /나트랑·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1 베트남의 대표적인 현지 음식 중 하나인 모닝글로리. 2 베트남 연유 커피를 맛볼 수 있는 현지 카페. 3 '더 웨스틴 리조트 앤 스파 캄란'의 야외 수영장. 4 힌두교 포나가르 사원 앞에서 열리는 민속춤 공연. 5 나트랑 대성당 전경.



3 '더 웨스틴 리조트 앤 스파 캄란'의 야외 수영장. 4 힌두교 포나가르 사원 앞에서 열리는 민속춤 공연. 5 나트랑 대성당 전경.



5 나트랑 대성당 전경. <신수민 기자>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